

KTV 인문학 열전 1. 인문학 편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권서

김경동
김기현
최재천
김광웅
문용린
정진홍
황경식
고미숙
김효은
장희익
차윤정
도정일
박정자
김영한

인문학 열전? 인문학 열정!

몇 해 전 일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 방식으로 표명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켰던 무렵입니다. 유수한 인문학자들이 서울역전의 노숙인들을 상대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뜨악했습니다. 아니,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고달픈 최하 빈곤층에게 헤겔이나 칸트를, 퇴계나 율곡을 강의하겠다는 말인가. 혹시 인문학 위기론에 호의적인 여론에 편승해 눈길 끌기 용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좌에 참여한 분들이 과연 이 같은 의구심을 몰랐겠는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들이 선택한 대상이 유독 노숙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학에서 인문분야를 전공하긴 했지만, 학자가 아닌 저에게는 분명히 어떤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은 절박한 생계문제로부터 거리가 있는 학문이라는 것. 인문학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초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인문학이 논의되고 유통되는 공간은 대학사회와 그 주변이어야 한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편견을 뒤집어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노숙인을 상대로 인문학 강좌를 기획한 분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문학이란 삶의 가치를 다루는 일이다. 문학이나 철학 또는 역사학이 오늘의 밥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계속되는 인생에서 어떤 태도로 밥을 벌어야 하는지는 일깨워 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고심하는 삶은 현재의 고단함에 매여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로 고심하는 젊은이들에게 인문적 사유가 필요한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문학이란 한가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개척하는 에너지원이자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인문학자들은 강조합니다.

기초소양이나 인문학이 자리하는 공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가로질러 인문학이 묻고 대답하고자 하는 영원한 주제가 삶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문적 소양이란 노숙인에서부터 기업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세상살이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송 종사자들도 그 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합니다. 이제 대학은 지식과 문화 생산을 독점한 유일한 기관이 아니어서 여러 사회교육 기관이 그 영향력을 압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방송국의 교양담당 프로듀서치고 인문적 내용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극히 희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어찌 할 수 없는 시청률, 청취율이 철옹성 같은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업광고 수주의 압박을 덜 받는 공영매체 종사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없다면 아무리 알찬 내용을 담아도 제작자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입니다. 정말,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인문교양을 프로그램화하기란 몹시 힘겨운 일입니다.

K-TV의 「인문학 열전」은 바로 이 같은 환경에서 '용기 있게 무능해지기로 작정한' 제작진의 열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진행을 맡아 기획단계 논의부터 참여한 저에게 「인문학 열전」은 모든 '안 된다'로부터 놓여날 기회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를 선정할 때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바로 '말썽'입니다. 저도 지난 15년간 여러 방송사에서 술한 교양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지만, 마이크 앞에서 방송에 걸맞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난 공력을 보여주는 노작(勞作)의 저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저서를 초라하게 만드는 '놀변'의 사례를 술하게 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재주가 뛰어난 인물만 여러 방송에 겹쳐 출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문학 열전」에서는 출연자가 놀변이어서 '안 된다'는 평가를 무시하고 오로지 해당 분야에 대한 그분의 학문적 역량만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안 된다'로부터의 해방은 이른바 '화제성'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한 사람에게 벌어지면 '사태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쓰고, 두 사람에게 벌어지면 '만연한다'라고 쓰는데, 세 사람째 벌어지면 아예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하더라도 관심에서 벗어나거나 일반화된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것이 언론매체의 속성입니다. 인문학조차도 화제거리가 되어야 기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문학 열전」에서는 주제에 화제성이 없어 '안 된다'는 평가를 전혀 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강의실에서나 다루어질 내용을 왜 방송에서 하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나 인문학 담론이 반드시 시류의 화제에만 부응해야 하는 걸까요?

'안 된다'로부터의 해방을 나열하다 보니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제작진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주문이 있습니다. "쉽게, 쉽게, 더욱 쉽게 말해주세요!"

그러나 「인문학 열전」에 출연한 학자들은 아마 정반대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어렵다고 비켜가지 말고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 제작진은 주제를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내용의 함량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상적 대화에서도 모든 말을 알아듣고 완벽하게 소통할 수 없을진대, 하물며 인문학에 '쉬운' 담론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울러 TV스위치만 켜면 자동으로 방영되는 공중파 프로그램과는 달리 채널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높은 교양 수준도 고려했습니다. 한데, 이 책을 읽어 보시면 금세 아시겠지만, 꽤 전문적인 담론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문학의 이해는 '성찰'과 '지식습득'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 경험의 집적이 모두 인문적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삼아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담을 나눈 학자들은 한국의 지식인 계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미시적 영역을 살펴보고, 때로는 거대담론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의 전문적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같은 전문성이 왜 일반인의 관심사여야 하는지를 알리고, 그 필연성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이제 막 인식의 문을 두드리는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면 이 대담 내용에서 힌트를 얻고 흥미를 느껴 출연자들의 본격적인 저서를 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에 담긴 인문학적 담론들, 혹은 '보편적 상식'이 다수의 관심사가 될 때 세상은 좀 더 살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2009. 12. 25

김갑수

우리 인문학의 길 김경동·김기현 13

1. 새로운 계기를 맞은 인문학 15 | 2. 대중 인문학의 미래를 위하여 22 | 3. 다른 여러 학문과 소통하는 인문학 25 | 4. 학문의 세계화 27 | 5. 인문학의 미래 과제 30

새롭고 낯선 유혹, 통섭 최재천 35

1. 통섭이란 무엇인가? 37 | 2. 왜 통섭해야 하는가? 45 | 3. 학문 분류의 변화 47 | 4. 왜 생물학에서 통섭이 시작되었나 50 | 5. 학교 교육에서 통섭의 필요성 53 | 6.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 55 | 7. 섞여야 아름답다 59

미래의 대학, 학문의 미래 김광웅 63

1. 융합의 시대 65 | 2. 제2 계몽주의 시대 72 | 3. 디지그노,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지혜 77 | 4. 미래 세계의 관계와 기술의 변화 80 | 5. 지식과 교육의 재구성 85 | 6. 새로운 리더십 89 | 7. 미래 사회를 위한 제언 93

넘치는 교육 열정, 아이의 행복은? 문용린 95

1.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 97 | 2.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 101 | 3. 교육의 책임 104 | 4.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 107 | 5. 집어넣지 말고 꼬집어 내라 111 | 6. 아이의 행복이 우선하는 교육 117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종교문화 읽기 정진홍 121

1. 신의 종교, 인간의 종교 123 | 2. 종교는 열린 해답이다 127 | 3. 믿음만이 우월한 가치인가 129 | 4. 종교언어의 특성 131 | 5. 한국인의 종교의식 138 | 6. 종교에 대한 열린 상상력 141

새로운 시대의 윤리 황경식 145

1. 인문학의 부상, 철학의 기능 147 | 2. 새로운 윤리의식 150 | 3. 도덕적 딜레마 154 | 4. 덕의 윤리 156 | 5. 공동체적 윤리교육 163 | 6. 사랑과 성의 윤리 166 | 7. 예방 윤리학 171

호모 에로스, 사랑에 대한 탐구 고미숙 173

1. 영원한 사랑의 신화 175 | 2. 현대의 왜곡된 성 179 | 3. 지나친 사랑이 아이를 망친다 181 | 4. 사랑의 폭풍으로 성장하다 185 | 5. 화폐권력에서 탈출하라 189 | 6. 공부는 에로스보다 강한 힘이다 193 | 7. 사랑하라, 두려움 없이 198

뇌는 과연 윤리적인가? 김효은 201

1. 뇌, 마음에 도전하다 203 | 2. 그러나 뇌가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 209 | 3. 기억,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 214 | 4. 뇌, 그리고 이성과 감정 218 | 5. 미래 사회에서 뇌과학의 역할 223

온생명으로 태어나다 장희익 227

1. 삶을 위한 알 229 | 2. 낱생명이 아니라, 온생명이다 232 | 3. 온생명, 인간을 통한 자각 239 | 4. 몸과 마음은 하나다 245 | 5. 온생명을 향한 인식의 전환 250 | 6.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눈 252 | 7.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256

숲의 생명, 생명의 숲 차윤정 259

1. 나는 나무다 261 | 2. 숲의 세계를 엿보다 263 | 3. 죽어서도 살아 있는 나무 268 | 4. 나무를 보고 인간의 삶을 생각하다 273 | 5. 숲에서 인류의 미래를 보다 280

왜 ‘책’ 이야기 하는가 도정일 287

1. 인문학, 사람답게 사는 길 289 | 2. 제어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 293 | 3. 종이책, 전자책의 미래 299 | 4.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303 | 5.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313

판옵티콘, 그 안의 권력 박정자 315

1. 시선의 역학 317 | 2. 효율적 감시체제, 판옵티콘 322 | 3. 권력의 전략 수정, 공개처형에서 감옥으로 330 | 4. 빛과 권력 333 | 5. 정보판옵티콘 시대 335 | 6. 익명의 권력 341

유토피아를 꿈꾸다 김영한 347

1. 이룰 수 없는 꿈, 유토피아 349 | 2.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토피아 356 | 3.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361 | 4. 유토피아의 이면, 디스토피아 366 | 5. 평등과 자유의 갈등을 넘어선 제3의 유토피아 369 | 6. 과학의 힘과 인문학적 상상력 375

추천사 _ 유인촌 379

